



나무와 사람은 함께 숨쉬었다

중앙박물관 유적답사(3) - 광릉캠퍼스 주변의 문화유산

신 용 철

(사학과 교수·박물관 유적답사단장)

경희의 자랑인 광릉캠퍼스는 수목이 울창하고 수려한 광릉숲속에 자리잡고 있다.

광릉숲은 '수도권의 폐'라고 일컬어지는 6백70여만평의 산 좋고 공기 맑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이 광릉과 수목원, 봉선사 등은 제3캠퍼스 주변의 훌륭한 산림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광릉은 조선왕조 제7대 세조대왕과 정화왕후 윤씨의 능으로 사적 제147호이다. 남쪽으로 좌측은 세조, 우측은 왕후를 모셨으며 역시 울창한 수목이 그 입구와 정자각을 더욱 빛내주고 있다. 입구의 우측에 있는 제실은 커다란 두개의 건물로 되어있는데 비교적 잘 보존되었고 6·25전

쟁후는 광릉학교의 임시교사로 쓰이기도 하였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나라 대부분의 문화관광지역에서처럼 안내책자가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광릉에서 1km이상 동쪽으로 떨어져있는 회경원은 조선왕조 22대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의 묘소이다. 이곳 역시 주변의 수목이 매우 울창하고 광릉안에서도 가장 조용한 곳이다. 원래 당시 양주군 배봉산(현재 회경동 시립대학)에 있던 것을 여러차례 옮기면서 이곳으로 오게되었다.

한편 이곳으로부터 20여리 남쪽으로 남양주시의 진접읍 내각리의 천점산 밑에 고찰인 봉영사가 있다. 이 봉영사는 서기 599년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데 1755년 인빈 김씨의 묘가 순강원으로 추존되면서 봉영사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봉산사의 말사로서 규모도 작고 대웅전을 신축중에 있다.

순강원의 비문에는 이 곳 지명인 내각

리(內閣里)와 관계된 조선왕조 이태조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약 30리 북쪽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읍현리에는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오다가 절에서 여덟 밤을 지냈다는 전설이 있으나 그에 관한 유적은 찾기 어렵다. 다만 이 곳의 지명이 팔야동이고 그 남쪽의 남양주시 진접읍에는 팔야리라는 명칭이 남아있을 뿐이다.

시절장이 있고 임업연수원도 있어 한국 임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 안에는 산림박물관을 비롯하여 15개의 전문수목원과 산림욕장 및 야생동물원 등이 있다. 더욱이 이 숲속에는 2천9백여종의 식물류, 2천8백여종의 동물류가 서식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연기념물 1백97호인 크낙새와 2백18호인 장

이 함께 잘 조화되고 있는 곳이다. 광릉 숲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인 능내부락에서 광릉캠퍼스를 우측으로하고 봉선사로 향하면 약 3만평정도 되는 논밭들이 길쭉하게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봉선사에 가까워지면 우측에는 6·25전쟁 후 이 절을 중건하는데 공헌이 컸던 운허 이학수(1892~1980) 스님과 우리 나라 개화기 근대문학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춘원 이광수(1892~?)의 비와 부도 등이 산기슭에 줄지어 서있다.

봉선사 입구의 유치원을 지나 약간의 언덕을 오르면 수백년 된 느티나무가 매우 노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는다. 좁은 주차장을 지나면 2층 건물인 청풍루가 있는데 이것은 불교신도들의 연수장으로 쓰이고 있다. 청풍루옆으로 6·25전쟁중 불타버린 봉선사 대웅전앞 긴 건물들을 복원하느라고 매우 바쁜 모습이다. 청풍루를 스쳐가면 정면에 몇개의 계단위에 꽤 넓어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한자로 '奉先寺'라는 현판이 보인다. 그 오른쪽으로 중앙의 광장 뒤편 봉선사의 대웅전인 '큰법당'이 우뚝 서있다. 대웅전이나 대적광전 등의 사찰명칭이 거의 한자로 쓰여진

종으로 가리워진 약 80cm의 자연석에는 '다경향일터'라는 글씨가 세로로 새겨져 있다. 이곳이 바로 춘원 이광수가 당시 봉선사 경내에서 시작한 광동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1946년 2학기에 머물던 집터이다. 다경향일은 그 당시 그 건물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글자 그대로 그는 이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불경을 읽으며 뒷산으로 산보를 했다고 한다.

봉선사는 한강이북(고양군 제외)의 대한불교조계종을 관장하는 제25교구의 본사로서 그 아래에는 70여개의 부속사찰이 있다. 봉선사는 본래 969년 고려 광종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1469년 조선 왕조 예종 1년에 세조대왕의 서거후 정화왕후 윤비가 왕의 능침을 모신후 광릉이라고 하고 이 절을 봉선사라고 하였다.

이 곳에는 세종이 창제한 한글을 널리 펼친 세조와 관계되어 불타버린 여실각 등에는 여러가지 한글관계 유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큰법당'이나 기둥에 쓰여진 불경 귀절들을 한글로 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봉선사 입구에서 보았던 비석과 부도의 주인공인 운허 이학수 스님은 1963년 동국대학교를 설립하여 고려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위대한 작업을 착수하였고 그후의 봉선사 주지였던 월운 스님이 역경원장으로 지금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한글과 봉선사는 떼를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봉선사 이북의 왼쪽 좁은 길로 산업을 따라 가면 수백평의 정원을 가진 아담한 한식가족위의 산속에 조선조의 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신숙주(1414~1475)의 암자 터가 있다. 전하기로는 신숙주가 이곳에 머물면서 산 넘어 개천을 건너 현재의 광릉을 자기의 묘자리로 정했는데 뒷날 그것을 세조에게 양보했다고 한다.

대학원을 들어서면서 기막히게 잘 조정된 정원과 정면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백색의 본관 건물이 숲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인다. 본관 왼쪽 언덕에 흰색의 높은 탑 꼭대기에 얹은 비둘기 밑으로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는 명구는 이 평화스러운 광릉문화의 꽃이며 또 우리 시대의 문화세계정착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다.

광릉·수목원·봉선사 훌륭한 산림문화권 형성

광릉 캠퍼스, 천혜의 자연적 입지조건 갖춰

광릉의 서쪽 포천군 소흘읍에 자리잡고 있는 수목원은 6백70여만평이나 되는 서울 근교의 가장 아름답고 울창한 숲과 나무의 휴식공간이다. 광릉의 숲은 세조대왕의 능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460여년에 걸쳐 보호되어왔고 1913년 시험림으로 지정되었다. 이 수목원에는 중부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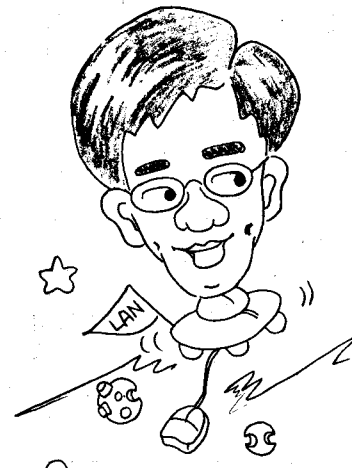
수하늘소의 서식지이며 특히 최근에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김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백두산 호랑이가 야생동물원에 있다. 도시의 소음과 공해에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의 자연교육장으로 수목원 및 산림욕장 등을 찾는 사람이 연간 1백5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광릉을 중심으로 서쪽의 수목원과 동쪽의 광릉캠퍼스 및 봉선사 등은 확실히 이 지역의 산림과 불교문화 그리고 평화교육

관과 달리 한글로 쓰여있고 기둥에 쓰여진 불교경전의 문구들도 모두 한글이어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고있다.

대웅전 앞에는 봉선사의 연혁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있고 그 옆으로는 1469년에 만들어진 보물 제397호인 범종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다. 청풍루의 동쪽쪽에는 종각이 있는데 다른곳에서 이곳으로 옮겨놓았다.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는 주변 30여리까지 들려 봉선사와 불심을 중생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종각위편에는 작은 꽃밭이 있는데 백일



LAN활용은 네티즌 향한 첫걸음

LAN의 정의와 컴퓨터 통신

성 연 중

(전자계산공학과 석사4기)

“이 컴퓨터 천리안 돼요?”, “프린터는 어떻게 하죠?”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이다. 시간이 지나면 프린팅 방법도, 천리안 접속방법도 알게 되지만,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랜인터넷? 통신? 우리학교엔 랜이 깔려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인터넷도 쓸 수 있다고하며, 컴퓨터 통신이라는 말도 한다. 과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랜(LAN)은 Local Area Network의 약자이다. 우리말로 지역망이라고나 할까?

두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하자 A는 1층에 있고, B는 2층에 있다. A는 레포트 작성하였고, 출력

해서 제출만 하면 되는데, A는 프린터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층의 B는 프린터를 갖고 있다. 그래서 A는 자기가 작성한 레포트 파일을 디스켓에 저장하여 B에게 갔다. B는 자기 컴퓨터에서 프린팅을 해주었다. 하지만, A는 프린팅 된 레포트를 보고 나서 틀리 곳을 알았다. A는 다시 내려가서 수정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B에게 갔다. 그리고 프린팅을 하려고 했더니 아차... 디스켓에 저장할 안 하고 왔다. 다시 내려가서 저장하고 올라왔는데, “아이고 디스켓이 딸겨...” 우여곡절 끝에 완성... A는 인쇄된 레포트를 갖고 오면서 곰곰히 생각을 했다. “프린터를 사?” 하지만 프린터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망설였다. 그러다가 A는 “내 컴퓨터에서 B의 프린터를 쓸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A는 자신의 컴

퓨터와 B의 컴퓨터를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했다.

이제 A는 인쇄를 하기 위해서 2층까지 갈 필요도 없으며, 디스켓이 잘못될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B의 프린터를 쓸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좋은 일도 생겼다. B의 컴퓨터에 앉아서 자신의 컴퓨터 내용을 볼 수도 있으며, 가끔씩은 B와 컴퓨터를 통해 채팅도 하고, 편지도 주고 받고, 좋은 게임이있으면 주고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렇듯이, 현재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랜케이블(여러분이 학교 건물을 유심히 본다면 노랜식의 붉은 전선을 볼 수 있다. 공대에 가면 확실히 볼 수 있다)이란 것을 건물마다 청징 감고, 그리고 건물과 건물들 끼리도 빛으로 자료를 받는

다는 광케이블로 연결을 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물에 지나가는 노란 케이블과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들(랜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랜카드, 라우터, 허브 등 여러 장치를 거쳐서 연결되어 있다.

랜은 바로 전화요금의 부담이 없는 대신 그 설비를 갖춘 내부에서는 이용료 없이 자유로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으며, 외부와의 접속을 위해서는 다른 설비와 접속망을 가지고 연결하게 된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천리안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천리안, 하이텔과 같은 통신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천리안, 하이텔 회사에 거대한 컴퓨터들이 있다. 여기에 있는 컴퓨터

는 여러분들이 보는 게시판의 글, 자료 등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이다. 여러분들이 모뎀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고 접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모뎀이 필요로 한다. 보통 5백에서 1천개의 모뎀이 줄기차게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면 이중에 한곳에 접속이 되어 이 거대한 컴퓨터의 자료를 얻는 것이다.

하이텔, 천리안 회사들은 이 거대한 컴퓨터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신비’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보’를 얻고 이렇게 천리안, 하이텔은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와 ‘컴퓨터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사용료를 내는 여러이분이 있다. 미국에도 역시 천리안, 하이텔같은 것이 있으며 컴퓨터, 브, 아메리칸 온라인 등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조금 사정이다. 인터넷의 시초는 미국방성에서 시작되었고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기업으로까지 확산된 것인데 여기서는 알기쉬워 조금 각색을 했다.

여기서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없으며 사용자가 돈을 어느 회사에 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학교와 회사들이 서로서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연결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회사가 무슨무슨 정보를 제공하건, 어느 학교에서 어떠한 자료가 있건, 사용자가 그 회사의 컴퓨터에 가서 자료를 얻고, 그 학교의 정보를 얻어갈 뿐, 천리안, 하이텔과 같은 개념은 없다.

한국인의 무한에너지, 그 땅에 간다 - (4)조선 후기 - 김정호편



■ 김정호-대동여지도

우리나라 고지도의 집대성본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정밀한 지도인 대동여지도는 1861년 (철종12년)에 편찬을 완성하여 목판본으로 찍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발걸음-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세상이 어찌될까? 나라에 도둑이 되고 세상이 태평할까? 백성에게 이로운 지도를 만들었다.” 신원익은 평생을 바쳐서 고지도와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고, “조선의 역사를 바꾼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조선의 역사를 바꾼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조선의 역사를 바꾼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자기의 뜻을 몽유로 이루어낸 김정호, 그는 시대를 앞선 선각자였었다. “조선이 어찌될까? 나라에 도둑이 되고 세상이 태평할까? 백성에게 이로운 지도를 만들었다.” 신원익은 평생을 바쳐서 고지도와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고, “조선의 역사를 바꾼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조선의 역사를 바꾼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내 땅 한 조각도 물라선 안되는 법이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발걸음-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도탈캐션의名家 金剛製鞋株式